현불 논단

호랑이처럼 바라보라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부처님, 코끼리 · 사자에 비견해
특히 코끼리는 수행 표본 비유
동아시아선 호랑이가 금수제왕

위인들의 형상 호랑이로 표현해
마조 묘사한 '牛行虎視' 대표적
中선사 관련한 호랑이 지명 많아

제왕 풍모 가진 호랑이 기운받아
한국 승가도 높은 기상을 펼치길

불상이 등장했던 시기는 대략 기원 1세기로 본다.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불상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무불상시대'라고 하는데, 500년이라고 추산한다. 그렇다면 무불상 시대에는 무엇으로 부처님 대신 예배를 했을까? 불자들은 탑이나 보리수 · 부처님 발자국 · 코끼리 등에 예를 올렸다. 코끼리나 사자가 동물의 제왕이듯이 부처님은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부처님을 코끼리나 사자에 비견하기도 한다. 코끼리는 부처님께서 코삼비 분쟁을 피해 잠시 홀로 숲속에 머물 때, 부처님을 시봉했던 동물이다. 또 〈법구경〉에는 코끼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게 하거나 비유로 들었다. 그만큼 코끼리는 불교에서 성스러운 이미지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민속적으로 호랑이를 동물의 제왕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어리석지 않은 지혜의 눈을 '호랑이 눈(虎眼)'에 비유한다. 또 위대한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호랑이에 비유한다. 당대 큰 선사인 마조(馬祖, 709~788)를 '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사람을 바라보았다(牛行虎視)'고 묘사하고 있다. '호시(虎視)'는 〈역경(易經)〉에 출처를 두는데, 진중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승려들의 신통방술적인 이미지나 걸출한 승려가 머물렀던 곳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이름의 샘(泉)이나 다리(橋)가 많다. 호랑이가 걸터앉은 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호랑이가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다는 두 가지 모두를 상징한다.

황벽 희운(?~856)은 강서성 의풍현 황벽사에서 선풍을 펼쳤다. 황벽사 도량에 고대로부터 승려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호포천(虎跑泉)이 있다. 현재도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우물의 물을 사용한다. 황벽이 저술한 〈전심법요〉는 조사선의 개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어록이며, 그의 뛰어난 풍모와 기개는 임제라는 걸출한 제자를 배출했다.

또 남악 회양(677~744)이 선풍을 펼친 호남성 남악 복엄사에도 호포천이라는 우물이 있다. 회양은 6조 혜능의 제자요, 마조의 스승이다.

셋째로 절강성 항주 서호 남쪽에 위치한 대자산 정혜사(定慧寺) 도량에도 호포천이 있다. 당나라 때, 성공(性空) 스님이 이 산에 왔다가 산에 물이 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신선이 나타나 '호랑이 두 마리가 우물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두 호랑이가 나타나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주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넷째로 강서성 여산 혜원(334~416)의 도량을 소개한다. 혜원은 만년에 동림사에 머물며 30년이 넘도록 산문 밖 출입을 금했다. 동림사 사천왕문 앞에 호계교(虎溪橋)가 있다. 어느 날 혜원에게 도교의 도사 육수정(406~477)과 유교의 도연명(365~427)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은 며칠간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두 명이 떠날 때, 혜원이 배웅했는데 산문 밖을 나가지 않기로 맹세한지 30년 만에 산문 밖 호계교를 건너버렸다. 깜짝 놀란 혜원과 함께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하여 '호계삼소' 고사가 생겼다. 당시 혜원은 이곳에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해 '출가자는 세속의 군주에게 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선지식이다.

앞에서 열거한 황벽 · 회양 · 성공 · 혜원 선사들은 출가자로서 기개가 충천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머물렀던 도량이기에 동물의 제왕인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다. 한달 전에 종교적인 편파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승려대회가 있었다. 올해 임인년에 이 땅의 모든 승려, 한국불교가 호랑이 같은 기개를 펼쳐 부상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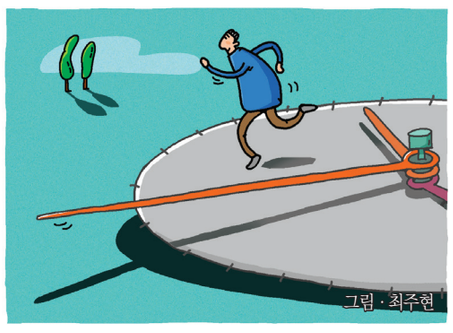
운동도 습관이다

건강은 행복의 주된 요소이며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우리의 몸이 운동을 원하는 것은 석기시대 때 사냥을 위하여 넓은 들판을 누비던 유전자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노동의 자리에 운동이 대신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지요.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운전을 시켜 놓으면 어디까지나 무작정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몸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노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형성하는 장기(臟器)와 뼈, 근육들이 점차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운동은 자기 관리이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낸 테오도어 루즈벨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지독한 천식을 앓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병약했던 루즈벨트는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매일 체조를 했습니다. 운동이 힘들지라도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거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의 몸은 꾸준한 운동으로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는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 또한 지적이고 강인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 몸이 건강해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훗날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 씩이나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신이 초래한 경우도 많습니다.

스페인의 화가이자 도예가인 호안 미로는 운동하는 습관으로 자신의 우울증을 고쳤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던 호안 미로는 권투, 줄넘기, 체조 등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 것은 물론이고, 창조적 에너지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운동하는 일상의 습관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릴 적 천식과 약한 몸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그는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밝은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엔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건강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은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도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면 삶이 즐겁고 매사가 그저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불교 위상 팩트 체크서 출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은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소속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일광조계종은 불교와 무관한 '무속' 계열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선거판에서 '스님' '법사' 명칭이 부정적인 의미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불자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특히 일광조계종이 한국불교종정협의회와 함께 2018년경 '수륙대재'라는 불교의례 명칭으로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사용하는 등 잔혹 행위를 한 사실이 사회적 뭇매를 맞으면서, 불교를 향한 인식왜곡을 우려하는 시각도 불거져 나온다. 선대위 측에서 건진법사를 무속이 아닌 한국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각 정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어지는 지지선언에서도 불교가 있다. 불교모임이나 단체 종단연합 형태로 발표된다는 점에서, '불교계 지지선언'이지만 상당부분 그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억속에선 스님 또는 불교계의 정치행위로만 인식된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고 보면 불교계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들도 불교위상을 흔드는 요인으로 안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스님들을 '정치승' '권승'으로 비하하거나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예하를 '바지'로 지칭하는 등의 행태는, 조계종의 실권이 마치 종무행정의 중심축인 총무원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런 비약과 조롱, 왜곡들이 조금씩 쌓이면 조계종, 나아가 불교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으로 잠재돼 종국에는 불교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 새 삶을 위한 나눔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2월 21일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서약자도 크게 감소함에 따라 홍보와 후원활동을 적극 펼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20년 47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누적 장기 기증자는 419명에 그쳐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2016년 2만 4611명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만 826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대기자 수가 2500명 이상 늘었다.

지난 2년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기증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내 장기기증 문화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지금도 매일 5.9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기증 건수가 감소한다면 이식 가능한 장기가 줄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 만큼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과의 이번 업무협약이 생명나눔을 위한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